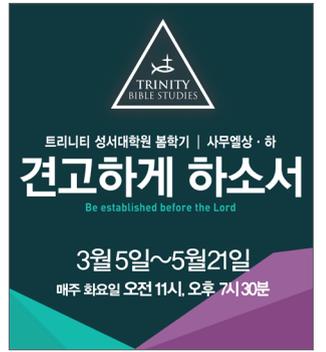




# 광림 뉴스레터

## KWANGLIM NEWSLETTER



## 광림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의 영성훈련장으로 거듭나다

3월 7일(목) <광림수도원 샬롬하우스 리모델링 봉헌예배> 드려

**“엘리베이터 설치 및 세면장, 화장실 등의 리모델링 필요성에 의해 공사를 시작했다. 숙박은 2인실과 4인실, 16~30인실 등으로 총 410명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5층 옥탑방을 예배와 숙박이 가능한 곳으로 만들고, 역사관 이용이 편리하도록 후문 설치 및 대성전으로 가는 통로를 개선했다.”**

1988년 봉헌한 광림수도원, 30년 되어 노후화



광림수도원의 숙소로 사용되고 있는 샬롬하우스 리모델링 공사가 완공되어 3월 7일(목) 오전 11시 광림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헌예배를 드렸다.

1988년 봉헌된 광림수도원은 서울에서 가깝고, 예배실 외 개인기도실, 기도동산 등 영적 재충전의 장소로 적합하여 광림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기독교 단체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 왔다. 그렇지만 30년이란 시간의 흐름 속에 여러 시설들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광림교회에서는 전반적인 리모델링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우선 숙소로 쓰이는 샬롬하우스 보수를 지난해 9월 착공하여 6개월만에 그 결실을 보게 되었다.

**한국교회기도의 산실로 큰 역할 감당**  
이날 김정석 담임목사는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출 3:1~10)는 말씀을 통해 “신을 벗는다는 뜻은 첫째, 내 뜻대로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통해 헌신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라는 뜻이다. 둘째, 내 욕망이나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명감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힘을 얻으라는 뜻이다”라고 하면서 “광림수도원은 야곱이 주님을 만났던 벨레이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광림교회와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곳에 찾아와 신앙을 회복하고 새로운 용기와 사명감을 갖는 장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건축위원장을 역임했던 신덕철 장로는 공사보고를 통해 “연면적 1,677평인 샬롬하우스는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이다.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한 설비나 전선, 배관 등이 낡았고, 건물 내 엘리베이터 설치 및 세면장, 화장실 등의 리모델링 필요성에 의해 공사를 시작했다”고 밝히면서 “숙박은 2인실과 4인실, 16~30인실 등 총 410명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으며, 5층의 옥탑방을 예배와 숙박이 가능한 곳으로 만들고, 역사관 이용이 편리하도록 후문 설치 및 대성전으로 가는 통로를 개선했다”고 보고했다. 이어서 이안수 관제위원장의 봉헌위원, 김

정석 담임목사의 봉헌선언 등이 있었으며, 김선도 감독님의 축복기도로 봉헌예배를 마쳤다. 예배가 끝난 뒤에는 로비에서 테이프 커팅식을 가졌으며, 참석자들은 새로운 모습으로 단장한 샬롬하우스 곳곳을 둘러보았다.

샬롬하우스 리모델링을 마침에 따라 다음달부터 대성전 공사를 시작한다. 아울러 1992년도에 조성된 기도공원도 환경 개선 작업을 할 예정이다. 이 모든 작업을 마무리하게 되면 광림수도원은 광림교회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거룩한 영성 훈련장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이득섭 기자 7sublee@naver.com

# 이 세대에 부한 자

선을 행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는 자의 삶의 터전이 굳건해집니다.  
(디모데전서 6:17~19)

인간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욕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소유에 대한 욕망일 것입니다. 소유는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줍니다. 그런데 이 소유욕이 지나치면 병리적인 현상이 일어납니다. 차라리 없을 때보다 못하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을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농촌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맨 앞자리에 한 부자농사꾼이 앉아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처음에 목사님은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많이 베풀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부자농사꾼이 흐뭇해하면서 “아멘”이라고

“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

했습니다. 이어서 목사님은 “여러분이 열심히 번 귀한 돈, 할 수 있는 한 잘 지키십시오”라고 했더니, 또 다시 부자농사꾼은 “아멘”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세 번째로 목사님이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가진 것을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주십시오”라고 하자, 부자농사꾼은 얼굴빛이 확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지는구먼”이라고 투덜대며 그 자리를 나가버렸다고 합니다. 선한 일에 쓴 물질이 진정한 내 물질이 되고 내 소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옥 중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이 세대에 부한 자에 대해 설명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설명한 ‘이 세대에 부한 자’가 어떤 사람인지 함께 본문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 첫째, 마음을 높이지 말라.

먼저 바울은 디모데에게 “마음을 높이지 말라”(17절)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재산을 많이 가진 자들이 흔히 갖는 교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특별하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과 구별 짓는 것입니다. 다르긴 뭐가 다릅니까? 입는 옷, 덮는 이불이 다를 뿐이



디모데전서 6:17~19

17.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 18.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 19.이것이 장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 러운 자가 되게 하라

지요. 또 다른 교만의 특징은 자신이 번 돈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십자가의 은총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또 하나 특징은 자신은 누구보다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로얄 패밀리라고 구분 짓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습니다. 교만하면서 죄가 들어오니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도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고 말씀합니다. 물질이 많아도 그 마음은 가난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성숙하게 함을 기억하고 의로운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 둘째,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17절)라고 말합니다. 그는 옥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알려줍니다. 자신의 선교 여정을 돌아보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그 길을 이끌었지, 돈 가지고 된 것이 아니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의 부한 자가 되려면 정함이 없는 재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한 것입니다. 제가 아는 교회 집사님 중에 제2금융권을 크게 운영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을 만날 때마다 “집사님, 예수 잘 믿으시고 교회에 빠지지 마세요”라고 권면하면, “바빠서요”라고 대답하는데, 얼마나 거만하던지요. 그런데 어느 토요일 오후, 그분의 직원이 버튼 하나를 잘못 누르고 900억이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아침이 되니 빈털

터리가 되었습니다. 재물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돈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자족하며 누리는 삶이야말로 이 세대의 부한 자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 셋째, 선한 일에 힘쓰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땀 흘려 번 귀한 물질을 선한 일에 쓰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18절)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19절)고 가르쳐줍니다. 나만 누리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에 힘쓸 때, 내 삶의 터가 굳건해지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한 일이란 무엇일까요? 이웃의 궁핍함을 알고 그들의 어려움을 돌보는 것입니다. 아직도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이 못 먹어서 굶어 죽습니다. 이런 어려운 이웃을 도우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십일조를 드리며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만군의 여호와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고 말하며 십일조를 하면 축복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우리 광림교회 안에도 온전한 십일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드린 십일조에 넘치는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주시길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광림교회 담임목사 김정석  
kwanglim-sp@hanmail.net

김정석 담임목사의 설교 CD와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강의 CD는 광림교회 목회연구원 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전화 02-2056-5730

# 광림장학금, 한국교회 책임질 미래 리더들에 전달

〈2019학년1학기 광림장학생 선발 축하예배 및 수여식〉 3월 3일, 주일 저녁예배



3월 3일(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2019학년 1학기 광림장학생(제21기) 선발 축하예배와 수여식〉이 열렸다. 두란노강의실에서 열린 축하예배에서 정준수 기획목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순종하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은 축복받는다. 축복의 완성은 감사이다. 언제나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 장학생들은 저녁예배에 참석해 성도들과 가족들의 축하를 받으며 김정석 담임목사에

게 장학증서를 수여받았고 하나님께 감사예배를 드렸다. 김정석 담임목사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여러분 모두를 축하한다. 성도들의 정성어린 헌금으로 마련된 장학금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후회없이 땀흘려 공부해 미래의 비전을 향해 달음질하라. 앞으로 여러분들은 한국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미래를 책임질 하나님의 사람들이다”라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광림교회 장학위원회는 53명의 대학생 지

원자 중에서 공정하고 엄격한 실사를 거쳐 37명의 장학생들을 선발해 6,15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성적우수장학생, 봉사우수장학생, 감리교목회자녀장학생으로 나누어 미래를 위한 희망의 씨앗을 심었다. 성적우수장학생으로 선발된 유학생 유가이 올렉산드로 학생은 “광림교회에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봉사우수장학생으로 선발된 김태산 의과대학 학생은 “저는 사랑부 장년1팀에서 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사랑부 사역을 통해 매주 얻는 은혜도 많은데 이렇게 장학금으로 은혜받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여 하나님과 광림교회 사랑부를 위해 일하고 쓰임받는 의료인이 되겠습니다”라고 힘찬 각오를 전했다.

백명순 기자 bmssoon@naver.com

## 포토 뉴스



삼일절 기념주일

3월 3일 삼일절 기념주일 예배에서 한글 독립선언문 낭독이 있었다.



에티오피아 대사 방문

3월 3일(주일) 슈페로 시구테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가 광림교회를 방문했다.



봄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개강

3월 5일(화) 봄학기 트리니티성서대학원 이본당 대예배실에서 열렸다.

## 담임목사 동정



- 2/24 광림남교회 청장년부 헌신예배 및 유아세례
- 3/3 삼일절 기념주일
- 3/3 2019 1학기 장학금 수여식
- 3/5 봄학기 트리니티 성서대학원 개강
- 3/7 광림수도원 살롬하우스 리모델링 봉헌예배
- 3/8 2019 중보기도세미나
- 3/8 7선교구 은혜 캠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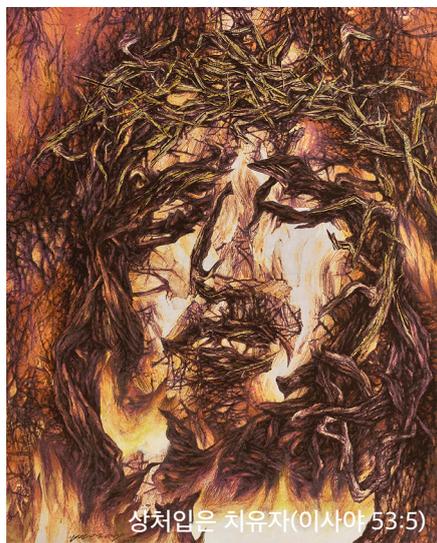
## 감독 동정



- 3/3 광림북교회 삼일절 기념주일
- 3/7 광림수도원 살롬하우스 리모델링 봉헌예배
- 3/10 광림동교회 주일예배

광림교회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www.klmc.net

# 〈사순절〉 자기 근신과 금식으로 예수님의 고난 묵상



상처입은 치유자(이사야 53:5)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다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죄인 된 우리

의 구속을 위해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사건에 담긴 구속사적 의미를 생각하며 경건 훈련과 제자훈련을 하는 절기이다. 사순절은 성회수요일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 전날까지 평일 40일과 여섯 번의 주일을 합하여 46일간을 지킨다. 사순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던 성찬식과 주님의 수난에 동참하고자 행하던 금식으로부터 그 유례를 찾을 수 있다.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금식을 행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신앙 성장과 회개라는 차원에서 구약의 유월절 만찬을 새롭게 해석하여 성찬식에 앞서 금식을 했다. 금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구속사역을 기념하는 하나의 중요 관습이었다. 특히 사순절에 행해지는 금식기도를 통해 불우한 이웃의 배고픔과 가

난을 생각하며 구제와 선행을 실천하였다. 자기 부인과 자신이 죽는 것을 배우는 영적 훈련의 기간인 사순절에는 다음 사항들을 실천해보자. 첫째,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성경을 읽는다. 둘째, 매일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갖는다. 셋째,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금식을 한다. (기호식품, 군것질, 오락 등을 삼가한다.) 넷째,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주변에 아픔을 당하는 이웃과 친구를 돕는다. 광림교회에서는 〈사순절 갈보리기도회〉를 3월 6일(수)부터 4월 20일(토)까지 벨렐 성전(오전 5시)과 교육관 2층 예배실(오전 6시)에서 진행하며, 4월 19일(금)에는 본당 대예배실에서 〈성금요일 성찬예배〉를 드린다.

변영혜 기자 yhbyun1010@hanmail.net

# 〈2019 중보기도세미나〉 성령의 일꾼으로 헌신 결단



이용희 교수

〈2019년 중보기도 세미나〉가 지난 3월 8일(금) 오전 10시~오후 3시까지 광림교회 본당 대예배실에서 열렸다. 이용희 교수(예

스티기도운동 대표)가 강사로 나선 이번 세미나에는 300여 명의 중보기도자와 중보기도에 관심 있는 성도들이 함께해 하나님께서 명하신 기도의 사명에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이 교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 중 중보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중보기도자들은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하며 사회적 갈등과 분열, 복핵 문제, 동성애 등 많은 현안 앞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회의 보이지 않는 힘, 중보기도실 광림교회는 기도의 기반 위에 세워진 교회이다. 교회 성장의 비결을 중보기도실의 기도

에서 찾을 수 있다고 지난 성장세미나에서 밝혔듯, 광림중보기도실은 1년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성도들의 삶과 교회와 교역자들을 기도로 보필한다. 특히 주일에는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목사에게 중보기도가 집중된다. 대예배실과 인터넷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세계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이 되도록 1부~4부예배까지 헌신한다. 김도옥 장로(중보기도회 위원장)는 “올 한 해 부름 받은 300명의 중보기도자들이 더욱 영성 있고 성숙된 중보자로 세워져 주님의 귀한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기를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이선아 기자 andy8950@naver.com

내 인생의 말씀

주님을 찬양하는 삶

지난달 나는 환갑을 맞았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이 실감난다. 하지만 주님을 만나 영접하고 새로 태어난 영적 나이는 39세이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즐겁고 행복한 일들도 많았지만,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기도 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점을 갖고 있을 때, 나의 삶에 영향을 준 신앙서적들 중 멀리 R 캐로더스가 쓴 <찬송 생활의 권능>은 너무나 감명 깊은 책이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6-18)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이라면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다. 우리 가정은 이 말씀을 가슴으로 삼고 거실에 커다란 액자로 걸어 놓았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진정으로 주님만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만 있다면 만사형통 하리라 믿는 것이다.

뜻하지 않은 삶의 고난을 당했을 때 주님만 의지하고 감사할 수만 있다면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더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 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 것처럼 기적은 일어난다. 2011년 7월 중순경, 나는 병원 응급실에 누워 있었다. 쇼크로 죽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고 혈압이 180을 넘겼고 머리가 불덩이였다. 다행히 뇌혈관은 터지지 않았고 MRI 촬영 결과 이상 없다고 해 퇴원했다. 하지만 그 때부터 두통으로 밤마다 시달렸다. 마치 바늘로 찌르듯이 아팠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신경을 쓰면 두통은 더 심해졌다. 나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다. 주말에는 산에 가서 피톤치드가 나오는 삼림욕도 하고 편백나무가 좋다고 해서 베개와 침대, 그리고 가구들도 사용했다. 두뇌에 좋은 오메가3도 매일 섭취했다. 그러면서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아플 때마다 다 진심으로 감사기도를 드렸다.

그러던 중 작년 4월 경 광림남교회 54바울선교회와 54-3에스더선교회 부부 동반으로 광림수도원 기도공원 순례를 하였다. 그 때 담당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고 감사하게도 머리가 아프지 않았다. 7년 동안의 두통이 사라진 것이다. 나는 부목사님께 기쁨으로 가득찬 목소리로 말씀 드렸더니 진짜 아프지 않냐고 되물으셨다. 주님께 진정으로 감사드리고 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이다. 할렐루야!”(시편 150:6)



유인숙 권사(남교회 가나안성가대)

[찾아가는 인터뷰 3회] 한은선 성도 (2교구)



다음 작품 기다리며 오직 주님만 바라봐 눈부시게 아름다운 미모와 믿음 역시 장미꽃처럼 향기로운 청년이 있다. 배우 한은선 성도는 광림 청년부에서 10년 동안 예배드리고 활동하고 있다. 최근에는 2월 9일에 종영된 40부작 드라마 <SBS 운명과 분노>에서 세련된 커리어 우먼 ‘이현정 실장’ 역을 맡아 열연했다. 장학위원회에서 봉사하는 한혜련 권사(2교구) 자녀이자 회화를 전공한 배우 한은선 성도 이야기를 들어본다.

장미꽃처럼 향기로운 신앙의 모습을 가진 배우

청년부에서 은혜로운 것 : 처음엔 5부예배만 드리다가 연에게 청년 종사자들의 모임을 만든다고 해서 참여했다가 속장, 교구장까지 섬기게 되었어요. 지금은 다 내려놓고 속원으로 참여하고 있어요. 유용찬 목사님이 주관하는 <목요쉐키나>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청년들이 모여서 주님을 찾고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를 정말 사모합니다.

평소 믿음생활 : 저희 청년부에서 2년 전부터 강조하는 신앙습관이 있어요. 바로 매일 ‘온타임’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목사님께서 매일 묵상을 해도 삶에 변화가 없다면 찾아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6개월 후 정말 삶에 변화가 크게 생겼어요. 지금은 여호수아서를 묵상 중입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코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필요한 자세가 마치 지금 제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연예인의 신앙생활 : 정해지지 않은 다음 작품이 있을 때까지, 즉 비활동시기는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 있어요. 힘든 점은 아무래도 직업 특성상 어디서든 주목을 받아야 해서 스스로 우상이 되기 쉬운 점들입니다. 정말 매 순간 깨어있어야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온타임 묵상’ 덕분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힘들었던 때 : 작품 활동을 하면서 힘들었던 것은 기억도 안 나요. 왜냐하면 작품을 할 때까지 기다리는 일이 훨씬 힘들거든요. 광

야에서 훈련받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극복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봉사 분야 : 올해 LFC 청년부 비전이 “도시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외치라”인데요. 그래서 노방전도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작년 제주선교 때 ‘믿음감리교회’에 벽화를 그리는 사역을 했는데, 정말 불가능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무사히 마쳤어요. 도착했을 때부터 돌아갈 때까지 비행기가 연착될 정도로 날씨가 안 좋았어요. 기도하고 작업에 임했는데, 벽화를 그리는 딱 하루 비가 그쳐서 완성할 수 있었어요.

덧붙여 최선을 다하는 팀원들 덕분에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저는 몸이 매우 안 좋았었는데, 기도하니 벽화를 끝냈을 때는 몸은 어느새 다 나왔더군요.

성극위원회 청년으로 : 믿는 자들이 모인 곳에서는 부족한 모습보다 장점을 먼저 바라보아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준비하면 주님이 다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리라 믿어요.

소망 : 배우로서 열어 놓으신 길까지 험통타길, 순종함으로 예비하신 것을 얻는 지혜로운 딸이 되기를, 그리고 저를 통해 선한 영향력으로 복음이 전파되길 소망합니다!

대표작 : 2018 옥수수티비 <나는 길에서 연예인을 주웠다> 문희역, 2014 <영화 조난자들> 유미역 외 다수.

김옥이 기자 beauty0303@gmail.com

<2019 사랑부 겨울수련회> ‘하나님을 향한 사랑’ 고백

3월 3일, 일상을 벗어나 아름다운 자연 속 국제광림비전랜드에서 개최



지난 3월 3일(주일) <2019 사랑부 겨울수련회>가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주제로 국제광림비전랜드에서 열렸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출발했던 예년과 달리 올해는 국제광림비전랜드에 도착하여 아름다운 자연 속에 위치한 서우채플에서 연합예배를 드렸다. 사랑부 예배는 일반 예배에서 느낄 수 없는 색다른 은혜가 있다. 목사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순하게 반응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꾸밈이 없어, 그 자체가 은혜이다. 김덕민 목사(사랑부 담당)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아가 2:10)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며, 우리도 하나님께 그 사랑을 일상에서 항상 고백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짝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아름다운 동행 관계가 되자고 강조했다.

예배 후 실내 레크레이션 시간에는 풍성한 선물들이 주어지는 다양한 퀴즈대회가 열렸으며, 학생들의 열정적인 참여로 긴장감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맛있는 점심식사 후에는 잔디썰매, 영화관람, 노래 자랑, 축구 및 농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아직 이른 봄인데 반팔, 반바지의 운동복 차림으로 운동장에서 뛰는 학생들은 마냥 즐겁기만 했다.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넓은 운동장에서 교사들과 어울려 땀을 흘리며 축구를 하는 모습 그 자체가 감동”이라고 한 교사는 말했다.

이번 수련회에는 학생, 교사, 자원봉사자를 포함해 23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한 명도 다치는 사람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우형진 권사(사랑부 위원장)는 “변함없는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 광림교인은 물론 경찰대학, 문영여고의 자원봉사자를 통해 학생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3월 초 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날씨 가운데 모든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부 겨울수련회에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이정순 기자 lilypink60@hanmail.net

# ‘필리핀’과 ‘파라과이’에 뿌린 복음의 씨앗

## 광림청년부 <2019년 해외단기선교> 하나님의 은혜로 성료



필리핀 선교



파라과이 선교



파라과이 선교

‘필리핀’ 아이타족의 차세대 리더 세우지기를 지난 2월 4일(월)~12일(화) 이준영 전도사를 포함한 15명의 광림 청년들은 아이타족이 거주하는 필리핀 까마칠레 지역을 방문했다. <백백만 해외100교회건축> 비전을 품고 수년 동안 필리핀에 단기선교팀을 파송하여 섬겨온 광림청년부는 그동안 필리핀 전역에 6개 교회를 세웠다. 이번 선교에서는 바차완, 까마칠레, 당하스, ECC 등 현지 7개 교회와 협력하여 아이들을 위한 아카데미 클래스(오카리나, 컴퓨터, 스트레칭, 댄스, 성경드라마, 태권도, 콰이어)를 진행했고, 아이들의 발을 씻어주는 세족식도 열었다. 또 건축 중인 ‘까르멘시타 선교센터’의 페인트칠을 하며 완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현지 박희영 선교사는 29년간 필리핀에서 복음을 전하는 평신도 사역자로 광림의 청년들과 함께 세운 교회에 현지인 목사를 세우고 아이타족의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는데 힘쓰고 있다. 이현빈 청년은 “지난 한달, 아카데미 클래스를 위해 회사 일을 마치고 교

회에 와 늦은 시간까지 커리큘럼을 준비했어요. 선교지의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동안 쌓였던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어요.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많은 걸 준비해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다”고 했다.

### ‘파라과이’ 남미 선교의 마중물 되다

영화 ‘미션’에서 가브리엘 신부의 오보에 선율에 원주민이 무기를 내려놓고 마음을 여는 장면을 기억할 것이다. 그 배경이 된 나라가 ‘파라과이’다. 남미 23개국 중 GNP 21위, 인구 35%가 환과 화살을 사용하는 원시 부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경제적으로 낙후돼 아이들이 먹을 음식조차 부족하다. 지난 2월 11일(월)~22일(금) 김기민 전도사를 포함한 10명의 광림 청년들은 남미 선교에 첫 도전장을 던졌다. 비행기 연착으로 출발 3일만에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에 도착, 피곤함을 뒤로 한 채 선교일정을 재촉했다. 체감온도 50도, 잦은 비에 준비한 프로그램은 변경해야하는 악조건 속에서 팀원들

은 현지 선교사가 사역하는 6개 지역 교회와 기독교 예술학교를 돌며 여름성경학교를 열고 아이들과 지역주민들을 섬겼다. 또 청년부가 후원하여 토지를 구입해 건축한 ‘사랑과 평화 교회’(해외 100교회 건축 56번째 교회)에서 헌당예배를 드렸다. 가장 낙후된 곳에 지어진 성전이지만, 헌당식에는 150여 명이 넘는 아이들이 모여 예배드렸다.



파라과이 ‘사랑과 평화 교회’

이승민 청년은 “파라과이를 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배에 참석했던 아이들이 계속 교회에 나와 소중한 복음의 씨앗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 걸음이 남미 선교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도드린다”고 했다.

이선아 기자 andy8950@naver.com

### 신앙 간증

## 은혜로운 선교에서 받은 사랑 나누며 살 것

그동안 알바, 자격증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해외선교를 미뤘었는데, 문득 이때가 아니면 해외선교를 못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제 미래를 준비하는데 해외선교가 방향성을 잡을 기점이 되길 바라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저는 해외선교는 이렇게 청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준비해야 하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팀장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사역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니? 그런 가벼운 마음으로 해외선교를 가려는 거야?’ 하고 혼내시는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주님께서 저를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시키고 단련시키시려고 부팀장으로 세우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던 제가 매일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면서도 기쁜 일인지 깨달았고, 그걸 깨달았을 때 제가 죄인이라 선교 갈 자격이 있는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선교가 아니라, 제 마음의 평안을 위해 가는 선교가 아닌가 하는 고민도 했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종으로 쓰임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행복했던 준비기간이었습니다.

선교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우리 파라과이 팀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중보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 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칠레에서 하룻밤 보내게 된 날, 선교 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불안한 마음에 시련인줄만 알았는데, 긴 비행으로 지친 팀원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때마침 파라과이에는 비가 내려 무더운 날씨가 가라앉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곳은 저희가 떠난 다음 날부터 다시 기온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팀원들 힘들지 말라고 계획하신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또 중보기도 단톡방에 팀원들 아프거나 다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 번 올렸는데, 정말 모두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역을 할 때는 현지인들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중보기도를 요청했는데 먼저 다가오는 사람들을 보며 중보기도의 힘이 크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 13:34) 이 선교 주제 말씀처럼 주님으로부터 과분하게 받은 사랑을 파라과이에서 전할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은혜로운 선교를 통해 앞으로도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정안진 성도(청년부)

## <2019 새학기 새벽기도회> 왕들의 삶 통해 지혜를 얻다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지켜주신다는 믿음 주셔 초록 새싹이 돌아나는 봄을 맞이해 광림교회학교는 2월 25일(월)부터 3월 2일(토)까지 기도도 학교생활을 준비하는 <2019 새학기 새벽기도회>를 진행했다. 본당 나사렛성전에서 새벽 6시에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한 자리에 모여 학업, 건강, 진로와 비전, 새 선생님, 친구들과의 관계성 맺기 등 다양한 기도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다. 주제 말씀은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역대하 7:17)이다. 하나님만 의지하여 선행하고 옳은 길로 백성을 인도한 왕, 반대로 하나님을 떠

나 죄악에 물들어 패망의 길을 자초한 유다 왕들의 삶을 조명해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했다.

강명남 목사(교육1부)와 도신우 목사(교육2부)가 강사로 나서 ‘역대하’ 말씀을 바탕으로 6명의 유다 왕들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형통의 은혜를 전했다. 매일 기도회 시간에 교회학교 부서마다 특송을 준비하여 예배의 풍성함과 은혜를 더했다. 이른 새벽에 어린 영·유아, 아동부, 중·고등부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기도회에 참석한 김혜영 집사(청장년부)는 “새벽기도회를 통해 자녀 하준, 하은, 하민이를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로 결단했어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제주도에서 이사 온 지 얼마 안 된 아이들이 새학기에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에 잘 적응하고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기도합니다”라고 말했다.

김태우 성도(중등1부 교사)는 “여호람, 웃시야,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 요시야. 성경에 나오는 왕들의 이야기로 드린 새학기 새벽기도회를 통해 하나님을 찾고 말씀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심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 하나님을 더욱 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중등1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3월 2일(토) 기도회 마지막 날에는 나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 나가길 서약하는 신앙서약서를 선포하고 안수기도를 받으며, 거룩한 성찬식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을 결단했다.

소현수 기자 camancow@naver.com

###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 목회현장 -



양재민 목사(10전교구)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음식과 요리에 관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온통 먹는 것에 관심이 많은 시대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시실 때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먹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먹을 때, 힘이 나고 몸이 회복되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먼저 해야 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던 엘리야가 낙담하여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고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구운 떡과 물을 먹게 하여 그의 육체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또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님도 처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와서 조반을 먹으라"였습니다. 먹는 기쁨을 삶의 우선순위로 삼는 것은 잘못이지만,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회복을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초대 교회는 성전에 모여 예배하기에 힘쓰며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교제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행 2:46)

최근에 속회예배를 인도하려 갔다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속회예배 후 속장님께서 가정에서 점심식사를 대접해주셨는데, 소박한 음식이지만 사랑으로 정성껏 준비해주셨습니다. 속장님 댁에서 속회를 드릴 때면 늘 가정에서 식사를 준비해서 속원들을 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잘 먹어야 그 안에서 귀한 교제와 기쁨과 사랑이 생겨난다며, 본인이 속원일 때 속장님께서 그런 사랑을 베풀어주셨고 그것이 너무 좋았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식위천(以食爲天), '먹는 것으로 하늘을 삼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식위천은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뜻 안에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속회로 모여 함께 떡을 떼며 교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 부흥의 불길 이어받아 새롭게 시작한 청장년부

- 광림남교회 -



### 신앙 성장을 통해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초청예배와 세례예식, 청장년 헌신예배를 함께 '믿음의 선한 증거로 세상을 화평케 하는 교회'라는 올해 광림교회 표어를 기초로 삼아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가정'이란 올해 목표를 가지고 청장년부는 2019년을 준비하였습니다.

매주 주일 오후에 진행되는 청장년부 큐티나눔 모임과, 매달 1회씩 진행되는 월간 모임을 통해 기존에 교회와 청장년부에 정착한 가정들이 새신자 가정과 부진자 가정을 끌어안아 주님 안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신앙 성장을 통해 '함께 세워가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광림남교회 2월 청장년부 행사는 김정석 담임목사님 초청예배와 세례예식, 청장년부 헌신예배로 함께 준비했습니다.

여러 준비 과정을 통해 이번 행사가 단순한 청장년부 행사가 아닌, 교회적으로 큰 행사로 마련하며, 심적으로 큰 부담이 되어 다가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역자들과 남선교회, 여선교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불가능할 것 같았던 식사와 행사를 무사히 진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김정석 담임목사님께서 교회 안에 젊은 세대의 부흥과 믿음의 가정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시며, 광림남교회 청장년을 격려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청장년부 10명 자녀들의 세례예식을 통해 이번 청장년부 헌신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축복의 자리가 되고, 청장년을 향한 깊은 사랑과 계획하심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셔서 정말 소중하고 귀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2019년 광림남교회 청장년부를 통해 젊은 가정들이 교회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하나가 되는 소속감을 느끼는 한 해가 되어, 아름다운 광림의 신앙유산이 믿음의 다음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김태연 집사(광림남교회)

## 개강 10주년을 맞이하는 <영어성경공부반 EBC>

- EBC(English Bible Class) -



이선우 교수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the door will be opened to you.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마태복음 7: 7)

위 성경 구절은 EBC(English Bible Class)에 첫 발을 내디뎠던 2017년 2학기 첫 시간에 이선우 교수님(5교구, 권사)이 그 학기 수업 모토라고 하신 말씀이다.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고, 나 역시 외우고 있던 말씀이다. 이제는 그 말씀을 영어로 외울 뿐만 아니라, 내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 좀 더 가까워진 말씀이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구하며 그 길을 찾았더니 결국 EBC 문을 두드리게 된 것으로 믿는다. 2019년은 EBC가 개강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항상 관심은 있었으나 시간을 맞추기 힘들어 2017년 장로 은퇴를 하고 2학기에 EBC에 첫 발을 내디뎠으니 2019년 이번 봄



학기에 4학기생이 된다. 일반 대학원은 4학기면 졸업반이지만 EBC는 입학은 있으나 퇴학도 졸업도 없는 곳이다. 자퇴하지 않는 한 매학기 등록하면 계속 다닐 수 있어서 1기생(학기로는 21학기)이 여러 분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 같은 4학기생은 병아리 학생이다. 초대한 이도 없이 2017년 9월 3일 기대와 더불어 신입생의 어색한 마음으로도 EBC에 고등학교 동기동창 3명과 잘 아는 후배와 성도 여러분이 이미 공부를 하고 있어서 낯설지 않았다. 은퇴 후 예배를 마치고 일찍 집에 가는 것이 허전하였는데, 영어성경공부를 시작하여 교회에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다.

EBC 출석 첫 학기에 디모데전 후서, 디도서, 빌레몬서를 통해 바울의 전도여정을, 2018년 1학기에는 출애굽기를 공부했다. 한국어개역개정과 영어 NIV에 나오는 인명에 대한 발음이 상이한 부분이 많이 있어 조금 힘들었지만, 영어로 성경을 읽으며 한글

성경으로 이해가 잘 안 되던 부분이 명확해지며 성경 이해가 깊어짐과 동시에 영어실력이 조금씩 회복되어 보람도 느꼈다.

2018년 2학기에 공부한 민수기는 자칫 지루해 할 수 있었지만, 교수님의 요약 위주 강의와 수많은 인명과 지명을 영어로 발음하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 되었다. 여자는 인구조사 계수에도 낄 수 없었던 당시에 므낫세 가문의 슬로브 핫의 노아를 비롯한 다섯 딸들의 이의 제기로 여자도 기업을 받을 수 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허락 하에서 이루어졌고, 이것이 이스라엘 전체 역사 가운데 여권운동의 시초인 것으로 생각되어 가슴이 벅찼다.

이선우 교수님의 강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대학장을 지내신 관록에 걸맞는 명 강의이다. 해박한 성경지식이 더해져 성도들로 하여금 집중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교수님의 유머와 임원진의 헌신으로 처음 참석한 분도 소속감과 안정감을 느끼기에 충분히 화기애애한 분위기이다.

EBC가 2019년 개강 10주년을 맞이하여 소망하기는, 광림교회 선교의 한 몫을 감당하기에 합당하도록 English Bible School(영어성경학당), 또는 English Bible Academy(영어성경원)로 새로운 명칭이 붙여지기를 바란다. 더불어 이번 학기 사사기와 룯기 강의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더 큰 비전을 세울 수 있기를 기도한다.

양경순 원로장로

# 불교국가 태국에 한국전통문화 공연과 힙합으로 복음 전해

트리니티찬양단과 마하나임AP, 2월 7일~14일 <태국 찬양선교> 진행



트리니티찬양단 <태국 선교>



마하나임AP <태국 선교>

트리니티찬양단(단장 : 박미경 장로)은 마하나임 AP 팀과 함께 2월 7일부터 14일까지 <태국 찬양선교>를 다녀왔다. 2004년부터 시작한 찬양선교는 올해 15번째로 태국 현지 학교와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했다. 한국 전통문화 공연과 찬양으로 선교를 다녀온 8명의 트리니티 찬양단의 찬양선교 간증을 전한다.

### 폐차분 라차팻대학교에서 감사장 받아

왕이 신으로 숭배되고 불교와 이슬람 등 여러 가지 잡신을 섬기는 태국에서 우리가 밟은 땅이 주님의 나라가 되길 간절히 기도하며 시작한 찬양선교는 강렬한 두드림의 '난타 공연'부터 시작되었다. 지난 4달 동안 연습한 우리의 작은 두드림이 그들의 심장을 두드리고, 태국 땅에 진동이 되어 복음이 전해지길 기도했다. 4세트의 북과 받침대가 40kg이 넘어 운송료가 염려되었는데, 저가로 예약한 항공사에서는 1인 30kg까지 수하물이 가능해 세세하게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로 모두 가져갈 수 있었다. 할렐루야! 오프닝 '난타 공연'이 끝나고,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의AP의 불꽃같은 위심으로 그 땅이 주님의 나라임을 선포했다. 땀과 열기가 가득한 가운데 한국어, 태국어 찬양이 시작

되었고, 현지교회 성도들과 주민들이 함께 뜨거운 찬양을 올려드렸다. 부채춤 공연과 난타 찬양, 소고춤 공연, 소프라노 솔로 찬양, 태권도 시범으로 함께 환호하며 박수 속에 'Oh Happy Day'로 80분 공연을 마쳤다. 첫 번째 사역지 '치니라교회'에서는 선교사님이 지도하는 아이들의 멋진 오케스트라 연주를 들을 수 있었다. 교회 앞 100여 평의 땅에 '왕끄라닷 비전센터 건축'을 보며 많은 아이들과 주민들이 모여 교회가 부흥하니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과 임재를 확인했다. '폐차분 라차팻대학교'에서는 500석이 넘는 대강당에 학생들과 총장, 군수도 참석하여 그동안 문화교류에 힘쓴 공로로 트리니티찬양단이 감사장을 받았다. 라차팻대학교에 찬양동아리가 생겨 우리가 뿌린 씨앗이 열매 맺기를 기도했다.

작년에 이어 방문한 '촌텐 위타야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 우리 공연을 홍보하는 큰 현수막을 학교 곳곳에 걸어놓고 환한 웃음으로 기다리셨다. 찬양단과 같은 색 셔츠를 갖춰 입어서 더욱 환영해주는 마음이 느껴졌다. 작년에 하나님의 역사로 교장선생님 부부는 딸과 함께 교회에 출석했다. 더 평안해진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 작지만 아름다운 '뽕

따빠우교회' 공연에서도 뜨거운 찬양으로 성령이 충만하며 새 힘을 얻었다. '촌텐 왕산 마을회관 공연'에서는 마을을 돌며 공연 홍보와 노방전도를 했다. 왕산마을 주민들이 모여 현지교회 성도들과 어우러져 흥겨운 마을 잔치로 기쁨이 넘쳤다.

최희숙 집사(트리니티 찬양단원)

### 인기있는 한국문화로 선교의 길 열어

마하나임(하나님의 군대) AP(A man of Prayer) 팀은 교육국 소속 위십팀으로, 에너지 넘치는 댄스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전한다. 초/중/고 시절부터 함께한 12명 마하나임 멤버들은 청소년들과 함께 춤과 찬양 등 하나님 주신 재능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매년 트리니티찬양단과 태국 선교를 함께하는 마하나임 팀은 태국에 먼저 도착해 댄스아카데미를 열어 현지 청소년들과 함께했고, 이후 트리니티찬양단과 찬양선교를 같이했다.

민부리 새 비전교회 댄스아카데미 : 2월 2일~9일까지 댄스아카데미를 통해 K-pop에 관심이 많은 태국 아이들이 힙합 댄스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기회가 되어 감사하며 위십팀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기도했다. '피스'라는 중학생 친구는 매일 집에서

마하나임AP 춤을 보고 연습할 만큼 열정이 있었다. 그동안 영상으로만 춤을 접했는데, 이번 위십 댄스아카데미에서 기쁘게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 친구를 위해 우리를 보내셨다는 생각이 들어 더 감사했다.

폐차분 위십, 찬양, 공연 : 2월 9일~14까지 복음이 전해지기 어려운 땅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 교회에 방문해 공연하고 트리니티찬양단과 함께 마을 사람들을 초대해 한국문화를 알리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같이 찬양하며 뜨거운 은혜를 나누었다. 불교 국가인 태국은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기독교 팀이 초대될 수 없음에도 한국문화사역이라는 명분으로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되어 춤으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었다.

태권도 공연을 한 이준수 단원은 무릎인대 파열로 재활 치료 중이라 공연 여부가 불투명함에도 현지 공연을 결단하고 힘차게 받을 뻔할 때, 무릎이 완전히 치유되어 더욱 은혜 넘치는 사역을 감당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의 틈새를 빛으로 채워 사용해 주셨다. 앞으로도 마하나임AP가 하나님의 눈물이 고인 곳, 마음이 향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팀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

김한나 청년(마하나임 AP 리더)

## <3.1운동 100주년 기념전시회>기독교인들 주도로 나라 사랑 외친 독립운동

2월 24일~3월 10일 밀레니엄공원에서, 조국 없이는 민족도 없다는 사실 일깨워주는 전시회



독립운동에 앞장선 기독교인들 소개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이다. 100년 전 대한독립을 외쳤던 순국선열의 뜻을 기리고 그 숭고한 정신을 이어받으려 광림교회는 매 주일 예배 시간에 '독립운동에 앞장선

기독교인들'을 소개하고 밀레니엄공원에서 <3.1운동 100주년 기념전시회>를 열었다. 3.1운동과 기독교, 3.1운동의 배경, 기독교 지도자들의 독립운동 계획, 민족대표 33인과 3.1운동 등이 자세히 기술되어 있어 광림교인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조국 없이

는 민족도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다.

3.1운동은 1910년 부당하게 대한제국을 합병시킨 후 무단통치를 일삼는 일제에 맞서 1919년 3월 1일, 감리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교파, 종파, 지역, 이념, 계층을 뛰어넘어 자주와 독립을 외치며, 온 세계에 평화의 정신을 보여준 대표적인 비폭력 운동이다. 특히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민족대표 33인 중 16명(감리교인 10명 포함)이 기독교인이었으며, 인구의 1.5%에 불과한 약 2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나라와 겨레 사랑을 외쳤다.

3.1운동은 민족독립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표출한 범애국적 운동이었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창설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임시정부의 중요한 직책을 맡은 구성원 8명 가운데 7명이 기독교인이었을 정도로

근대사에 있어 기독교는 나라 창건과 발전에 주춧돌이 되었다.

박형규 권사(8교구)는 "대한 독립을 위해 헌신하셨던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광림교회가 강조하는 역사 의식이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도 깊이 새겨졌으면 좋겠네요"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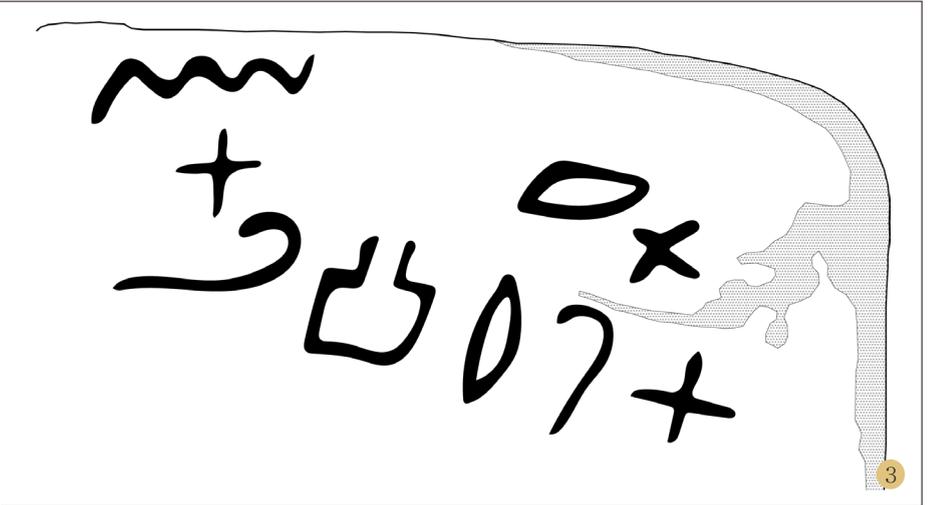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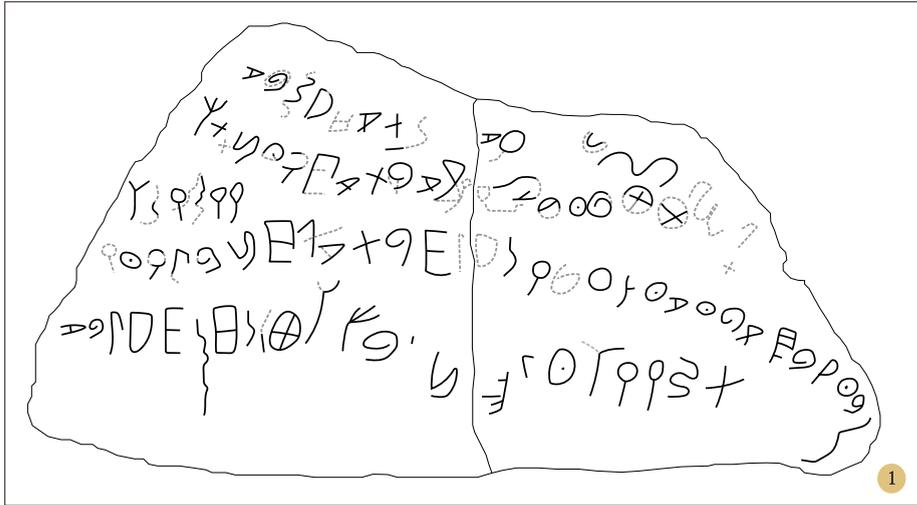
광림교회는 3월 3일(주일), 삼일절 기념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전 교인이 한목소리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제단의 태극기를 향해 애국가를 부르면서 믿음의 선조들의 값진 희생과 이 나라를 굳건히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또한 광림교회가 3.1운동 100년 정신을 계승하면서 나라 사랑과 선교 한국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유병권 기자 ybkpower@empas.com

이스라엘 역사 전문가  
이익상 목사와 함께하는

# 유물과 함께보는 성경과 역사

8 이즈벳 자르타



우리 한글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씁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그랬을까요? 훈민정음이 처음 기록된 책을 보면, 세로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썼지요. 마치 한자로 쓴 책들처럼 말입니다. 중국 한자의 영향을 받은 우리나라는 중국처럼 세로 쓰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왔지요. 그럼, 한글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사람들이 추측하기는 아마 세로 쓰기가 가로 쓰기로 바뀌면서부터 왼쪽부터 쓰기가 시작되었다고들 추측합니다.

1895년에 출판된 국한회어(國韓會語)라는 책이 있어요. 국문을 한자나 한문으로 풀이한 말모음집인데요. 이 책이 가로 쓰기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여진 것을 보면, 적어도 1895년에는 가로쓰기, 그리고 왼쪽에서 오른쪽 쓰기가 시작된 것이 분명합니다. 게다가 대한제국 시대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외래 문자와 서양의 글자들이 속속 소개되었지요. 아시다시피 서구의 알파벳은 가로쓰기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씁니다. 이처럼 서구 문명이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한글도 가로쓰기가 보편화되었고, 1945년 광복 이후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모든 교과서에 한자를 없애고 모든 글을 가로 쓰기로 정했다고 하네요.

그럼, 조금 고대로 가볼까요? 이집트어는 글쓰기의 방향이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던 별 상관 없이요. 예를 들자면, 이집트 상형문자(Hieroglyphs)를 읽는 사람들은 어떤 방향이든 읽을 수 있었습니

다. 상형 문자에서 새나 사람이 나올 때, 새의 머리나 사람의 머리가 향하는 방향이 글을 읽기 시작하는 방향이거든요. 그럼, 히브리인들과 히브리인들이 살던 고대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읽었을까요?



← 이집트 상형문자를 읽는 방향

구약성경 히브리어와 현대 히브리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어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가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대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도 마치 이집트 사람들 마냥 쓰는 방향이 약속처럼 정해진 것은 없었던 모양이에요. 시내산의 남서쪽에 세라비트 엘 카렘(Serabit el-Khadem)이라는 곳에는 구리 광산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 구리 광산에는 가나안 출신의 노동자들이 주로 일을 했었거든요. 이 광산의 노동자들 가운데에는 아마 성경의 히브리인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 광산에는 이집트의 여신 하토르(Hathor)에게 제사를 드리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글자가 쓰여진 돌조각들이 출토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조각 위에 새겨진 글자의 모양이 참 독특했더랬습니다. 페니키아 글자를 기본으로해서 이집트의 상형문자의 영향을 받은 그들만의 특별한 글자 형태였거든요. 이집트 문화와 페니키아 문화가 만나 새롭게 고안된 이 글자의 형태를 '시나이식 표기의 원형' 'Proto-Sinaitic letters'

라고 부릅니다. 이집트 고왕국의 때부터 신 왕국에 이르기까지(기원전 19세기-15세기)의 긴 시간동안 그곳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광산들 중에서도 대단히 중요했던 그곳에서 발굴된 돌조각 중의 하나를 알란 가디너(Alan Gardiner)라는 학자가 해독했는데, 그 위에는 '여주인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즉, 이집트의 여신인 '하토르에게'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어구는 왼쪽에서 오른쪽 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한글처럼 말이지요. 즉 가나안에서 살던 사람들이 시나이 반도 쪽으로 진출하면서 가나안 문자의 전통 위에 이집트의 문자의 형태가 채색된 시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 쓰기를 했었다는 증거가 된 셈입니다.

기원전 12세기 즈음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정하고 있는 이즈벳 자르타(Izbet Zartah) 토기는 성경의 에벤에셀(삼상 4:1)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굴되었습니다. 쉐아(Shea)라는 학자는 이 다섯줄의 글이 법궤가 블레셋에서 기랴여아림으로 옮겨가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정확하게 해독하기 힘들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글자도 조악해서 아마 글씨 연습을 하던 일종의 공책이 아니었을까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야 어찌되었든 간에 간혹 지워져 있는 글자들 사이로 확실한 글자들이 보이고, 그 글자들의 표기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로 쓰기 되어있는 것은 분명했어요. 결국 시나이 반도에 살던 가나안 사람들 뿐 아니라,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도 왼쪽에서 오른쪽 쓰기를 하고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오른쪽에서 왼쪽 쓰기의 히브리어 쓰기 방법이 사회적인 약속으로 확정되었을까요? 11세기 후반 또는 10세기 초반에 쓰여진 샤아라임(Khirbet Qeiyafa)의 글까지도 보면, 아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기를 한 것으로 보아서,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10세기 중반, 솔로몬 시대 이후부터 오른쪽에서 왼쪽 쓰기가 확정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페니키아와 교류가 늘어났습니다. 잘 아는 이야기이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두로의 왕 히람이 도와주는 이야기 말입니다(왕상5:1-12). 이 두로가 페니키아의 영향 아래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페니키아와 활발한 무역 활동을 하면서, 국제적인 상업 표준을 따르기 위해서, 마치 우리 한글이 중국식 표기 방식을 버리고, 서구의 방식을 따르듯, 페니키아의 표준을 따랐던 것이지요. 결국 고대 히브리인들과 가나안 사람들은 글쓰기의 방향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약속한 일정한 규칙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기원전 10세기 중반부터 오른쪽에서 왼쪽 쓰기가 확정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Butin, Romain F. "The Protosinaitic Inscriptions." Harvard Theological Review 25[2] (1932): 130-203.

Shea, William H. "The 'Izbet Sartah Ostrakon.'" Andrews University Seminary Studies 28[1] (1990): 59-86.

Lam, Joseph. "The Invention and Development of the Alphabet." Pages 189-195 in Visible Language: Inventions in Writing in the Ancient Middle East and Beyond. Edited by Christopher Wood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2010.

### 사진설명

- 1 이즈벳 자르타(Izbet Zartah) 토기는 성경의 에벤에셀(삼상 4:1)로 추정되는 곳에서 발굴되었다. 쉐아(Shea)는 이 다섯줄의 글이 법궤가 블레셋에서 기랴여아림으로 옮겨가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정확하게 해독하기 힘들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다.
- 2 두루마리 : 성경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 쓰기를 하며, 길게 쓴 두루마리는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보관한다.
- 3 Proto-Sinaitic Letter로 쓰여진 세라비트 엘 카렘의 글귀는 "여주인에게" 라고 쓰여있다.

이익상 목사(텔아비브 대학교 박사과정)

